



# 흡연의 피해

## 1. 담배의 피해

### 1) 건강에 대한 피해

**담**배 연기 속에는 4000여 종의 유독물질 및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 한두 번의 흡연으로 건강에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나 일단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매일 30~40분에 한 대씩 수십 년을 지속적으로 피우게 되기 때문에 독성물질의 축적 작용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담배 피우는 경우를 대기오염의 안전기준에 적용해 보면 안전기준을 약 490배 초과하는 수치이다.

담배를 피우면 일차적으로 우리 몸의 모든 세포, 장기 그리고 조직들의 조기노화가 일어나 수명이 단축된다. 성인병, 노쇠현상, 피부노화, 정력감퇴 그리고 노망현상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 비해 더 젊은 나이에 일어난다.

평균수명은 약 8~10년 단축되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모든 암의 30~40%는 담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매년 250만 명이 담배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매년 3만 명이 흡연으로 인한 질병에 이환되어 사망한다고 보고되었는데 교통사고로 매년 1만2천~1만3천 명이 사망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담배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가를 알 수 있다.

### 2) 정신건강상의 피해

종종, 담배가 정신건강에는 좋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나 그것은 오해다. 담배를 피우면 그 속에 있는 니코틴

에 의하여 습관성 중독이 생긴다. 이때 담배를 끊으면 이 습관성 중독 때문에 금단증상이 일어나서 고통을 받게 된다.

다시 담배를 피우면 니코틴의 혈중농도가 올라가 금단증상이 없어지는데 이 현상을 마치 정신건강에 좋은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즉 담배를 피움으로써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의존증이 생기게 되므로 정신과에서는 담배를 끊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약중독 환자로 인식하고 치료를 하고 있다.

### 3) 다른 사람들에 대한 피해

연구결과, 담배는 담배를 피우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많은 피해를 주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1986년 미국 보건 및 시민 봉사성에서는 'The Health Consequence of Involuntary Smoking'이라는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330페이지가 되는 이 보고서는 간접흡연으로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예를 들어 담배를 피우는 남편과 같이 살고 있는 부인은 그렇지 않은 부인보다 폐암 발생율이 30%, 심근경색발생율은 50%나 높다고 하였다. 그 이외 흡연자와 같은 사무실에 근무할 때 또는 흡연하는 부모를 가진 어린이, 담배 피우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 등이 받는 피해들도 계량화하여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흡연장소와 금연장소를 법으

로 구분하게 되었고, 흡연권을 주장하게 되었으며 흡연자에 대한 각종 법적인 규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 4) 경제적인 손실

일반적으로 금연운동에 대해 정부는 세수가 감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는 담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나라에서 담배로 인한 각종 손실을 경제적으로 측정할 후 밝히는 자료에서 담배를 통한 세수보다는 담배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이 더욱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2회에 걸쳐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1991년 봄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담배로 인한 추가 의료비만 1년에 1조 2천억 원이며 그 이외의 사망, 결근, 학제 등으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도 합하여 1년에 1조 억 원이 된다고 하였다. 그 이외 환경오염, 간접흡연으로 인한 손상 등을 합하면 가히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 2. 간접흡연의 피해

그 동안 간접흡연은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에 비해 건강상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왔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에 따르면 간접흡연도 우리가 생각해 왔던 것보다 훨씬 해롭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담배연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

뿜는 연기이고, 또 하나는 불이 붙은 담배에서 직접 나오는 생담배 연기이다. 앞의 것은 양이 많고 뒤의 것은 그 양이 적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내뿜는 연기를 '주류연(主流煙)'이라고 하고, 생담배 연기를 '부류연(副流煙)'이라고 한다.

주류연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담배를 피울 때 담배연기를 빨아 폐 속에 집어넣는데, 이 때 폐 속으로 들어가는 연기는 담배 속과 필터를 거쳐가는 동안 독성물질 중 알갱이가 큰 것들은 대개 걸러지고 작은 알갱이로 된 화학물질들만이 폐 속으로 들어간다.

대부분의 발암물질, 니코틴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그대로 폐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들어간 독성물질의 대부분은 폐 속에 그대로 남는다. 따라서 폐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연기 속에는 독성물질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즉, '주류연'은 양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덜 해롭다.

한편, '부류연'은 하나도 걸러지지 않고 담뱃불에서 직접 나오는 연기다. 이 연기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들이마시는 연기보다 훨씬 더 독하다.

간접흡연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생담배 연기를 마시기 때문에 비록 담배를 피우는 사람보다 들이마시는 연기의 양은 적을지라도 매우 해로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간접흡연의 피해는 누구에게 미치는가?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이다. 그 중에서도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인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부인은 남편이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인보다 폐암의 발생율이 80%나



높고 심장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30~40%나 높다.

담배를 피우는 남편은 폐암에 걸리지 않는데, 같이 살고 있는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부인이 폐암에 걸리는 일도 있다. 폐암에 걸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폐암에 걸리는데, 남편은 그런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부인이 폐암에 걸릴 유전인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결국 우리 나라에서 여자가 폐암에 걸리는 이유 중의 대부분은 남편의 흡연이다. 따라서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막아야 한다.

종종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돕는다거나 남편이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커녕 오히려 결심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짓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으로 역울한 피해자는 어린이들이다. 특히 10세 이하의 어린이에게는 담배연기가 치명적이다. 어린이의 몸은 아직 완전히 성숙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피해를 입는다.

마치 식물에서 갓 싹튼 잎사귀 같

아서 부드럽고 약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듯 약한 세포, 조직 그리고 장기가 독한 화학물질에 닿으면 어른보다 더 쉽게 손상될 것임은 당연한 일이다.

집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경우 어린이는 천식, 감기, 호흡기질환, 중이염 등에 걸릴 확률이 두세 배나 높아진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건강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 따라서 아기가 있는 방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직장에서의 간접흡연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한 방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으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도 억울하게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

선진국에서는 동료들의 허락 없이는 절대로 함께 일하는 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법적으로 흡연실을 따로 마련하도록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특히 중앙냉난방을 하는 건물의 어느 한켠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연기 속의 독성물질 중 많은 부분이 걸러지지 않고 다시 방으로 순환해 들어오기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는 거의 그대로 나타난다. 이는 마치 여름에 수영장 안의 한쪽 구석에 소변을 볼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놓는 것과 같다. 따라서 흡연실은 바깥에 따로 마련해야만 한다.

그밖에 대중교통시설, 비행기, 공공시설 등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는 이유도 바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의미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72**